

# 재미 한인 기혼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vert Narcissism and Marital Satisfaction of Korean-Americans: The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and Empathy

정수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Su-Yeon Jung(su\_hahop@daum.net)

### 요약

본 연구는 재미 한인 기혼자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과 결혼년수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리조나, 텍사스 지역에 거주하는 기혼남녀 24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내현적 자기애는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간에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성별과 결혼년수에 따라 용서,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감과 용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혼남성의 경우 내현적 자기애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 공감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공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한편,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내현적 자기애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재미 한인 | 내현적 자기애 | 결혼만족 | 용서 | 공감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forgiveness, empathy, and marital satisfaction for Korean-American married couples and to discover the differences in covert narcissism, forgiveness, empathy, and marital satisfaction by gender and years married. Also this study aims to prove the mediating effects of forgiveness and empathy, an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differences across genders. For this purpose, a total of 248 married Korean Americans who live in South Carolina, Arizona and Texas were subjected for this research.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overt narcissism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forgiveness, empathy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orgiveness, empathy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the differences in forgive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by gender and years married were significant. Third, as a result of the mediating effects test, empathy and forgiveness showed indirect influence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marital satisfaction. Fourth, for married males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empathy, empathy on forgiveness, empathy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For married females, the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on forgiveness, forgiveness on marital satisfaction were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eyword : | Korean-Americans | Covert Narcissism | Marital Satisfaction | Forgiveness | Empathy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재미 한인 사회는 1970년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미국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아시아인 집단이다[1]. 재미 한인 부부들은 문화적인 적응문제, 언어장벽, 학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수와 대우를 받는 신분상의 불일치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재미 한인들의 이혼율은 미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높고[1][2], 이혼상당 비율이 1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재미 한인들의 결혼 불안정성이 높으며, 가족해체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1][3].

재미 한인 부부들은 이민 생활과 관련한 좌절감, 스트레스, 주류문화의 기득권을 가진 남편의 권력 통제 수단으로서의 가정폭력, 부부간의 문화적 차이 및 성역할의 변화에 따른 갈등으로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4]. 결혼 불만족, 갈등 그리고 이혼은 자녀, 우울, 낮은 사회적 유능성, 건강문제, 수명 감소 등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그러나 결혼 관계가 만족스러운 경우에는 개인의 안녕감[6], 행복감[7]의 수준이 높고, 우울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8]. 더불어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자녀 양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9]. 따라서 안정되고 만족스러운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여 생산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자녀의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나아가 문제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10]. 그렇기에 재미 한인 부부의 결혼만족도 향상은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부부가 이민 생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성격적 변인 중의 하나가 내현적 자기애이다. 내현적 자기애는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11],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12]. 이들은 평가에 대한 예민함과 자신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투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13] 갈등상태일 때, 배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대한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부정적

인 감정을 가지며, 배우자에게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소망을 더 가진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진정으로 타인을 의존하거나 믿지 못하고 타인을 자기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다[14].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배우자를 통제하고 저항하려는 마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김성미와 이수립[16]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는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성미[17]는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결혼만족도보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결혼만족도가 낮음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내현적 자기애는 부부갈등을 야기하고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관계에 어떠한 요인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탐색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결혼만족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탐색하고, 성별과 결혼년수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용서와 용서과정을 촉진하는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선정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한다. 더불어 성차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용서와 공감 증진을 통한 결혼만족도 향상과 재미 한인들의 가정 행복을 증진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문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 1)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어떠한가?
- 2)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성별, 결혼년차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 3)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

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  
는 어떠한가?

- 4)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내현적 자기에, 용서, 공감  
과 결혼만족도의 구조적인 관계는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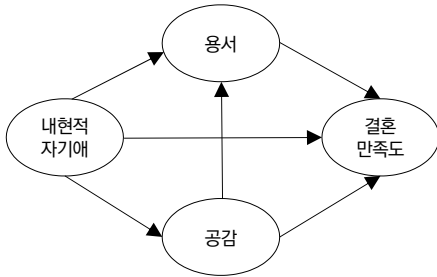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1

## II. 이론적 배경

### 1. 내현적 자기에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과시나 거만한 태도  
등 외적으로 두드러진 자기애적 행동은 잘 나타나지 않  
지만, 작은 실패나 외부 평가에 과도하게 예민하여 쉽  
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취약성이 주된 특징이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며, 지나치게  
감정을 억제하고, 사람들 눈에 띄거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불편해 한다. 또한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지  
여부에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치심과 굴욕감을 쉽게  
느낀다[18].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자기에  
의 위협에 민감하고 자존감이 낮으며 자기개념이 부정  
적이다[19]. 때문에 의미 있는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기대하고 상대방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자신들의 자존  
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내현적 자기에를 가  
지고 있는 사람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대  
방에게 자신과 동일시 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인이 보  
여주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여겨  
질 수 있는 요소이고, 상대방을 대하는 사고와 행동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예민해질 수 있다

[13]. 선행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신  
경증적 경향성, 내향성, 적대감, 우울의 정도가 높고  
[20],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다고 한다[12]. 또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은 배우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여 배우자가 자신의 기준에 맞춰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5]. 이와 같이 내현적 자  
기에는 부부갈등을 유발하고 정신건강, 결혼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2. 결혼만족도

결혼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남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  
문에 배우자 각자의 개인 내적인 특성들이나 두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혼생활에서 만족도는 달라  
질 수 있다[21]. 결혼만족도는 결혼에 대한 기대와 결과  
간 일치의 정도이다[22]. 또한 결혼생활 전반에서 경험  
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  
과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23].

결혼만족도는 개인의 정신건강, 심리 사회적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심리  
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24]. 결혼만족도가 낮아지  
면 가족 고유의 정서·관계적 기능이 약화 되면서 이혼  
율 증가, 아동·노인학대, 가족 폭력과 같은 가족의 역기  
능적 특성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25].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결혼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 내현적 자기에 성  
향자들은 내현적 자기에의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 요  
인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불안정/무력하다고 지각하고  
배우자에게 두려움/무력감을 느끼며 갈등을 피하고 자  
신을 방어하려는 마음을 더 갖는다[26]. 한편, 김성미와  
이수림[16]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가  
결혼만족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착취/자기중심성, 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을 배우자가  
높다고 지각하는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는 결혼만족도,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미 한인 기혼자의 내  
현적 자기에와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

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 기혼자의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 3. 용서

용서는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상처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을 없애고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갖는 패러독스적인 심리과정이다[27]. 즉, 용서는 깊고 부당한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갖는 부정적 판단, 감정, 행동 반응을 극복하고 상대에 대해 긍정적 사고, 감정, 행동 반응을 하는 것이다[28]. 용서는 부당한 대우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때 분노, 공격성을 감소시키고[29][30], 대인관계 갈등을 해결하며[31], 부부간의 의사소통, 결혼만족도 및 관계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32][33]. 이는 용서가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순환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고통스러운 관계 경험을 종식 시키고, 화해를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0]. 이와 같이 용서는 부부갈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완충하는 기능을 한다[34]. 따라서 용서는 결혼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회복하게 해주고, 결혼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28].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용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용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35]. 또한 임원범과 홍혜영[36]은 내현적 자기애와 자기용서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7]. 이를 종합해 볼 때 용서가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일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가 매개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용서가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4. 공감

공감이란 타인의 입장을 수용하는 능력으로,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타인의 경험이나 감정을 마치 자기가 타인이 된 것처럼 이해하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37]. 즉, 공감은 자신과 타인을 혼동하지 않고 타인이 느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38]. 공감능력이 부족하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감정적으로 타인의 경험을 느끼는 정도가 낮으므로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좁을 수 있다. 더불어 타인에게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37]. 박남숙[39]에 따르면 부부가 공감적인 태도로 의사소통을 하면 부정적인 감정, 갈등을 상대방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표출하고, 서로의 약한 부분과 상처에 대해 솔직하게 의사소통할 정도의 신뢰감과 친밀감 수준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이처럼 공감은 상대방 배우자의 관점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부부갈등 상황에서 서로에게 만족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40]. 또한 공감은 심리적 안녕감[41]과 결혼만족도 향상에 역동적인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42].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은 주로 소극적이고 적대적인 대인관계를 갖는 경향이 있어[43] 내현적 자기애가 공감과 결혼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공감이 매개효과를 갖고 있다[11]. 또한 용서와 공감은 결혼 관계에서 자기애적 상처로 인한 부부갈등을 해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44].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각 변인들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용서와 공감이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용서와 결혼만족[28], 용서와 공감 능력 관계[43],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세 변인 간의 관계[21]를 살펴본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졌을 뿐 내현적 자기애 변인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성별과 결혼년수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별에 따른 구조적 관계의 차이를 함께 탐색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리조나, 텍사스 지역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 기혼남녀이다. 설문 조사는 2019년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5주에 걸쳐 실시하였고, 총 565부를 배부, 285부를 회수하였다. 회수율은 50.4%이며, 유학생, 유학생 배우자, 미국인 배우자, 방문자, 이증 및 결측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48개 응답을 통계·처리하였다. 설문수집은 한인 교회, 한인 성당, 한인 마트, 한인 카페 방문 등을 통하여 오프라인으로 수집하고, 일부 우편으로 수집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구체적인 인구통계학적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08	43.5
	여	140	56.5
연령	30대 이하	55	22.0
	40대	62	25.0
	50대	67	27.0
	60대 이상	64	26.0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45	18.1
	고등학교 졸업	33	13.3
	전문대 졸업	107	43.1
	대학 졸업	63	25.4
직업	기능 기술직	30	12.1
	단순노무직	4	1.6
	사무직	18	7.3
	서비스 판매직	24	9.7
	자영업	40	16.1
	전문직/경영	44	17.7
	주부	56	22.6
	학생/무직/기타	32	12.8
월 소득	2,000 달러 미만	26	10.5
	2,000~3,000 달러	21	8.5
	3,000~4,000 달러	22	8.9
	4,000~5,000 달러	33	13.3
	5,000 달러 이상	146	58.9
결혼 년수	5년 미만	28	11.3
	5년~10년 미만	35	14.1
	10년~20년 미만	48	19.4
	20년~30년 미만	59	23.8
	30년~40년 미만	54	21.8
결혼 유형	40년 이상	24	9.7
	연애결혼	156	62.9
	중매결혼	43	17.3
	절충혼	46	18.5
미국	기타	3	1.2
	10년 미만	61	24.6

거주기간	20년 미만	93	37.5
	30년 미만	46	18.5
	40년 미만	32	12.9
	40년 이상	16	6.4
자녀 수	1명	43	17.3
	2명	136	54.8
	3명	50	20.2
	출산예정/무자녀	19	7.7
배우자	한국인	248	100.0
	미국인	0	0
종교	기독교	216	87.1
	천주교	24	9.7
	불교/무교/기타	8	3.2
	전체	248	100.0

#### 2. 측정도구

##### 2.1 내현적 자기에 척도

내현적 자기에는 강선희와 정남운[20]이 Ahktar와 Thompson[14]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고 총 4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의 공통요인 2개(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와 내현적 자기애의 고유요인 3개(목표불안정,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신경증적인 경향성(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과 자기애의 특성(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이 포함[20]되어 있어 신경증적인 경향성만이 높은 사람과 내현적 자기애자를 변별하기 위해 적합한 측정도구이다.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애가 높음을 의미한다. 강선희와 정남운[2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2로 나타났다.

##### 2.2 결혼만족도 척도

결혼만족도는 Snyder[46]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를 권정혜와 채규만[47]이 번안 및 수정한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MSI의 160문항 중 전반적 불만족 척도(GDS) 22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본 척도는 결혼생활에 대한 주관적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험적 연구에서나 임상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47].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역채점 문항은 22문항 중 12개 문항들이다. 권정혜와 채규만[4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 2.3 용서척도

용서는 오영희[48]가 개발한 한국인 용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이 용서 경험에 대한 생각,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부분과 두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는 점 [31]을 보완한 단축형 용서 척도이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배우자로부터 부당하고 상처받았던 경험을 생각하도록 한 뒤, 현재 배우자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영희[4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 2.4 공감척도

공감은 Mehrabian, Epstein[49]의 정서공감척도, Davis[50]의 IRI검사, Bryant[51]의 정서공감척도를 박성희[52]가 변안하고, 전병성[53]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영역은 인지공감과 정서공감으로 구분되고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지공감은 다시 관점취하기와 상상하기로, 정서공감은 타자 지향적 공감적 각성과 개인적 고통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병성[5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5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재미 한인 기혼자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22.0과 AMOS 21.0이다. 먼저 기초분석으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로 분석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 사항 등은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변인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성별, 결혼년차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참고로 일원변량분석 시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내 구체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미지수와 부합지수들의 계산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참고한 적합도 지수는  $\chi^2$ ,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SRMR(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을 이용하였다. CFI는 .90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이고, RMSEA와 SRMR은 값이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이면 보통 수준을 의미한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집의 크기가 클 경우 안정된 모수치와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경로계수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검증 단계를 거쳤다.

#### IV. 연구결과

##### 1.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분석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는 [표 2]와 같다. 변인들 간의 상관은 전체적으로 -.661~.799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첨도는 7보다 작으며 왜도의 절대값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변인	내현적 자기애	공감	용서	결혼 만족도
내현적 자기애	1			
공감	-.329**	1		
용서	-.432**	.594**	1	
결혼만족도	-.427**	.671**	.809**	1
평균	2.313	3.476	3.997	3.835
표준편차	0.451	0.791	0.634	0.793
왜도	-.112	-.864	-.830	-.947
첨도	-.413	.497	.228	.566

##### 2. 성별과 결혼년수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

###### 2.1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검증 결과는 [표 3]과 같다. 검증결과, 성별에 따라 용서와 결혼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용서는 여성이 4.118, 남성이 3.904로 나타나 여성의 용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수준  $p < .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는 남성이 3.962, 여성이 3.738로 여성보다 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p < .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내현적자기애	남	108	2.345	0.472	.992
	여	140	2.288	0.434	
용서	남	108	3.904	0.555	2.661 **
	여	140	4.118	0.675	
공감	남	108	3.478	0.621	.035
	여	140	3.475	0.903	
결혼만족도	남	108	3.962	0.718	2.227*
	여	140	3.738	0.835	

\*  $p < .05$ , \*\*  $p < .01$ , \*\*\*  $p < .001$

###### 2.2 결혼년수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

결혼년수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검증결과, 결혼년수에 따라 용서와 결혼만족도가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용서의 경우, 10년 미만 이 4.201, 10년~20년 미만이 4.080, 20년~30년 미만 3.890, 30년 이상이 3.863으로 결혼년수가 높아질수록 용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1$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 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이 30년 이상보다 용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결혼만족도의 경우, 10년 미만이 4.071, 10년~20년 미만이 3.859, 20년~30년 미만 3.783, 30년 이상이 3.670으로 결혼년수가 높아질수록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p < .05$ 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집단내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e*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10년 미만이 30년 이상보다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표 4. 결혼년수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

		N	평균	표준편차	F, <i>scheffe</i>
내현적 자기애	10년 미만	63	2.273	0.442	.959
	10년~20년 미만	48	2.312	0.413	
	20년~30년 미만	59	2.396	0.474	
	30년 이상	78	2.282	0.463	
	합계	248	2.313	0.451	
용서	10년 미만	63	4.201	0.620	4.343 ** a) d *
	10년~20년 미만	48	4.080	0.540	
	20년~30년 미만	59	3.890	0.643	

	30년 이상	78	3.863	0.651	
	합계	248	3.997	0.634	
	10년 미만	63	3.566	0.663	
	10년~20년 미만	48	3.602	0.742	
공감	20년~30년 미만	59	3.518	0.624	2.129
	30년 이상	78	3.295	0.987	
	합계	248	3.476	0.791	
	10년 미만	63	4.071	0.806	
	10년~20년 미만	48	3.859	0.700	
결혼만족도	20년~30년 미만	59	3.783	0.792	3.168 * a > d *
	30년 이상	78	3.670	0.805	
	합계	248	3.835	0.793	

a : 10년 미만, b:10년~20년 미만, c:20년~30년 미만 d: 30년 이상  
\*  $p < .05$ , \*\*  $p < .01$ , \*\*\*  $p < .001$

### 3.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간 관계에서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

#### 3.1 모형평가

최종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부분매개모형의 CFI는 .962, TLI는 .950, RMSEA는 .089, SRMR은 .037이고, 완전매개모형의 CFI는 .962, TLI는 .951, RMSEA는 .088, SRMR은 .037로 나타났다. 완전매개모형은 부분매개모형보다  $\chi^2$  값이 .44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df=1$ 에서 두 모형간  $\chi^2$ 의 차이가 임계값이 3.84보다 낮은 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즉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 보다 경험적 자료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최종결정하였다.

표 5. 모형평가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SRMR
부분매개모형	174.853 ***	59	.962	.950	.089	.037
완전매개모형	175.301 ***	60	.962	.951	.088	.037
차이	.448	1				

#### 3.2 최종모형의 경로분석

최종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토대로 각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을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구인간 경로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토

대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모든 변인간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내현적 자기애에서 공감에 이르는 경로( $\beta=-.839$ ,  $t=-14.503$ ), 내현적 자기애에서 용서에 이르는 경로( $\beta=-.422$ ,  $t=-3.951$ ), 공감이 용서에 이르는 경로( $\beta=.399$ ,  $t=3.699$ ),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 $\beta=.652$ ,  $t=9.840$ ), 공감이 결혼만족도에 이르는 경로( $\beta=.357$ ,  $t=5.907$ )가 유의하였다. 즉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공감이 낮아지고, 공감이 높을수록 용서와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용서하는 마음이 낮아지고,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내현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공감과 용서 수준이 낮아지고, 공감과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구인간 영향력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표 6. 주요변인의 경로계수 추정치

변인		B	S.E.	$\beta$	t	p	
내현적자기애	→	공감	-.77	.05	-.839	-14.503	***
내현적자기애	→	용서	-.39	.09	-.422	-3.951	***
공감	→	용서	.40	.10	.399	3.699	***
용서	→	결혼만족도	.62	.063	.652	9.840	***
공감	→	결혼만족도	.34	.058	.357	5.90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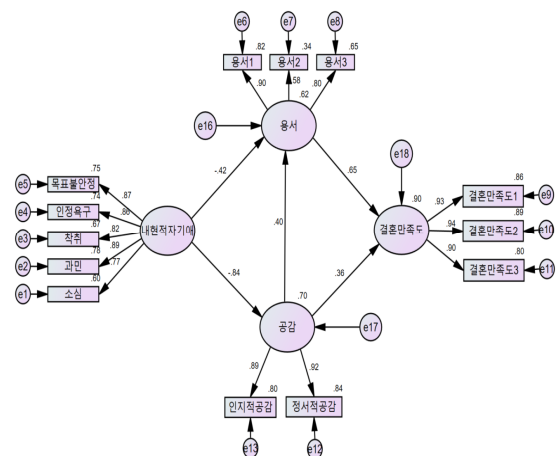


그림 2. 최종 연구모형의 경로계수(표준화계수)



### 3.3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인 내현적 자기애가 종속변인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인 공감과 용서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은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집의 크기가 클 경우 안정된 모수치와 표준오차를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Bootstrapping 표집을 2,000번 실시하였다.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간접효과 크기가 95%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이 설정한 0을 포함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였다. bootstrapping을 사용하여 직접효과, 간접효과 유의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경로	직접 효과	간접 효과	Bootstrapping 표준 오차	유의도 검증		p
				95% 신뢰구간 하한 값	95% 신뢰구간 상한 값	
내현적자기애 → 공감	-.839	-	-			
공감 → 결혼만족도	.357					
내현적자기애 → 용서	-.422	-	-			
용서 → 결혼만족도	.652	-	-			
내현적자기애 → 공감 → 용서 → 결혼만족도	-	-.794	.032	-.849	-.719	.001

간접적 매개효과 유의성에 대한 최종 검증결과, 그 효과가 95% CI(-.849, -.719)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도 수준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공감과 용서는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가 높더라도 공감과 용서가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4. 성별에 따른 구조모형 경로 비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의 효과 크기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집단 분석을 위해 형태동일성 (configural invariance), 측정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 구조동일성(structural invariance) 검증 단계를 거쳤다.

첫째, 형태동일성 검정을 통해 남녀집단 간 요인구조의 동일성을 살펴보았다. 검증 결과[표 8],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적절한 기준을 충족하여, 형태동일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chi^2=229.887$ ,  $df=120$ ,  $p<.001$ , CFI=.962, TLI=.950, RMSEA=.077, SRMR=.044).

둘째, 측정동일성 검증을 위해 형태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측정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표 9], 두 모형 간 차이(10.052,  $df=9$ ,  $p > .05$ )가 나타나지 않아 측정단위동일성이 확보되었다. 이에 남성과 여성 간 측정동일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구조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 모형을 기저모형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의 경로계수가 동일하다고 제약을 가한 구조동일성 모형을 비교하였다. 구조동일성 검증 결과[표 9],  $\chi^2$ 차이( $\chi^2=19.237$ ,  $df=5$ ,  $p < .01$ )가 나타났다. 잠재변수들 간 경로계수에서 남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표 8. 동일성 검증에 대한 적합도 지수

모형	$\chi^2$	df	CFI	TLI	RMSEA (90% CI)	SRMR
모형1 : 형태동일성 (기저모형)	229.887 ***	120	.962	.950	.077 (.040-.041)	.044
모형2 : 측정동일성	239.939 ***	129	.964	.956	.059 (.047-.071)	.034
모형3 : 등가제약모형 (구조동일성)	259.176 ***	134	.962	.956	.059 (.048-.070)	.041

표 9.  $\chi^2$  차이 검증 결과

모형	$\chi^2$ 차이	df 차이	p	동일성 여부
측정동일성 검증 : 모형 1 vs 모형 2	10.052	9	.346	채택
등가제약 모형 : 모형 2 vs 모형 3	19.237	5	.001	기각

각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10], 내현적 자기애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 $\beta = -.877$ )이 여성( $\beta = -.800$ )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 내현적 자기애가 용서에 미치는 부정(-) 영향력은 여성( $\beta = -.513$ )에게 나타났으며,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 $\beta = .545$ )이 여성( $\beta = .367$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p < .001$ ), 공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성( $\beta = .397$ )이 여성( $\beta = .305$ )보다 정적(+)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여성( $\beta = .687$ )이 남성( $\beta = .616$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에 대한 경로는 [그림 3][그림 4]에 제시하였다.

표 10. 남녀집단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남성		여성	
	B	$\beta$	B	$\beta$
내현적자기애 → 공감	-.804 ***	-.877	-.758 ***	-.800
내현적자기애 → 용서	-.217	-.283	-.522 ***	-.513
공감 → 용서	.456 **	.545	.394 **	.367
용서 → 결혼만족도	.655 ***	.616	.645 ***	.687
공감 → 결혼만족도	.353 ***	.397	.307 ***	.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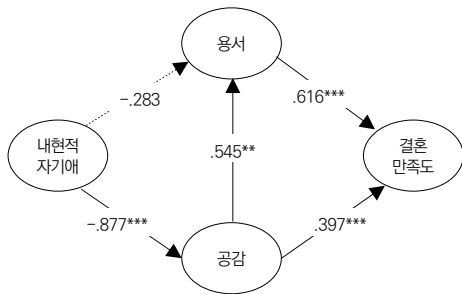


그림 3. 남성의 경로계수(표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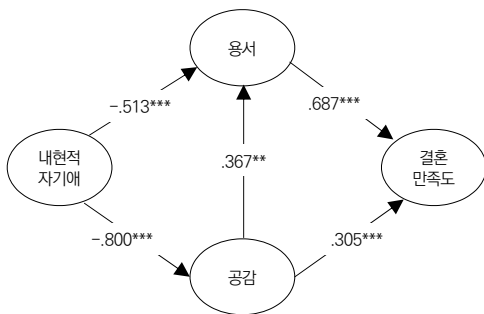


그림 4. 여성의 경로계수(표준화)

## V. 결론 및 논의

###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밝히고, 성별과 결혼년차에 따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더불어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구조적 관계에서 성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와 용서, 내현적 자기애와 공감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과 용서, 공감과 결혼만족도, 용서와 결혼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공감과 용서 수준은 감소하고, 공감과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감수준이 높아질수록 용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과 용서를 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 [11][36]와 공감과 용서는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기존의 연구[21]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더불어 공감이 용서를 촉진시키는 변인으로 작용한다[29]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성인의 경우 배우자를 공감하는 것이 어렵고 배우자의 공감 반응 초차 역기능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11]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들은 타인의 평가나 비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징을 보이는데[13] 단순한 공격 행동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확대하고 해치고, 모욕한다고 예상하며 비난 경험을 보다 많이 기억하고 오랫동안 회상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35]. 결국 내현적 자기애는 공감에 대한 어려움으로 용서의 능력이 낮고, 이로 인하여 결혼만족도 수준이 감소 된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공감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용서를 촉진하여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성별과 결혼년수에 따라 용서와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성별에 따른 용서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용서의 경우 기혼여성의 용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는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남성의 용서 수준이 기혼여성의 용서 수준보다 더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54][55]과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기혼남성의 결혼만족도가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 보다 더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56]와 일관된 결과이다.

결혼년수에 따른 용서와 결혼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년수가 높아질수록 용서와 결혼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년수가 높은 부부일수록 용서가 낮은 반면, 결혼년수가 낮은 부부일수록 용서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5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결혼지속기간에 따라 남녀 모두 결혼만족도는 하락한다는 기존연구[56]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서신화[55]에 의하면, '결혼년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용서에 더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이는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적응 수준이 낮아지고[34], 과거에 발생한 부부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5].

이를 종합해보면 용서 수준은 기혼여성이 높지만 결혼년수가 높아질수록 기혼여성들의 용서 수준이 기혼남성에 비해 더 감소[55]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결혼만족도가 기혼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를 위한 용서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중년·노년 기혼여성을 위한 용서 교육 및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내현적 자기가 용서와 공감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아도 용서와 공감 수준을 향상시키면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부부공감이 이루어지기 힘들지만[11], 공감능력 향상을 통해 용서의 수준을 높여 결혼만족도의 지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21]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 이는 용서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이 공감이라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고[57], 공감이 용서 과정에서 역동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여 부부의 심리적 건강과 안녕의 회복

을 가져오고 깨어진 부부관계 회복의 가능성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9].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의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서를 다루기에 앞서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먼저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내현적 자기에와 결혼만족도의 구조적인 관계에서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에에서 공감, 공감에서 용서, 공감에서 결혼만족도, 내현적 자기에에서 용서, 용서에서 결혼만족도 경로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혼남성의 경우 내현적 자기에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력, 공감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공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다. 즉 기혼남성은 기혼여성에 비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클수록 공감 수준이 낮아지는 부적 영향력이 크며, 공감이 용서하는데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격적 특성으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공감적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11]는 기존 연구의 보고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혼남성의 공감이 용서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선행연구[21]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혼남성 상담현장에서 공감을 다루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공감훈련과 함께 용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결혼만족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기혼여성의 경우 내현적 자기에가 용서에 미치는 부적 영향력,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정적 영향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기혼여성은 용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의미하며 용서 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과 용서가 부적 상관이 있고[35], 기혼여성의 용서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8]와 일치한다. 서정선, 신희천[28]은 기혼여성의 용서가 자신의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남편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있는 기혼여성의 용서는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함께 증가시킬 수 있

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높은 기혼여성을 위한 용서프로그램이 개발 및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및 용서와 공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함으로써 용서와 공감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내현적 자기애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혼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용서와 공감이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들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었다.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성별의 차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른 상담개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내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재미 한인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재미 한인 기혼자들의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재미 한인 부부 이해를 돕고 부부치료를 위한 중재방안을 탐색하는데 의의를 갖는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는 이민 사회라는 상황적 맥락 속에서도 용서, 공감,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이민 사회문화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개인 심리적 특성이 정신건강,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58]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는 재미 한인 부부를 상담할 때 이민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이민 지위, 언어·문화적 차이의 문제[58]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자기애적 특성은 한번 형성되면 점차 강화되고 견고해지며 지속되는 성격 특징을 갖고 있어[18] 내현적 자기애 성향자와 배우자의 결혼만족도를 함께 감소시킬 수 있음[16]을 상담자가 인지하고, 체계적인 치료적 개입을 할 때 재미 한인 부부관계 회복과 화목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2. 연구의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리조나, 텍사스 지역의 재미 한인 기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대상자들의 87.1%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재미 한인 기혼 전체로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지역 및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지닌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기혼남녀 각각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각각의 기혼남녀가 아닌 부부를 함께 측정하여 연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대한 평가[16]와 그 영향력을 함께 탐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재미 한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내현적 자기애, 용서, 공감을 측정하였으나, 이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후의 연구에서는 재미 한인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화 정체성, 미국문화적응성과 같은 이민 관련 변인들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배우자가 한국인인 재미 한인 기혼 남녀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한 재미 한인 기혼남녀에 대해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인과 결혼한 재미 한인 기혼자, 미국인과 결혼한 재미 한인 기혼자의 내현적 자기애와 결혼만족도 관계를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1] 김효순, 엄명용, 박미정, “재미 한인교포의 이혼 후 재혼생활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2권, 제2호, pp.5-28, 2010.
- [2] S. Rhee, “Domestic Violence in the Korean Immigrant Family,”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Vol.24, No.1, pp.63-77, 1997.
- [3] 신혜섭, “세계화와 재외 한인 가족: 재미 한인 가족의 적응과 생활,” 한국가족학회지, 제7권, pp.355-366, 1995.
- [4] 전명희, “미국 내 한인여성의 가정폭력 특징과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피해사례의 내용분석,” 임상사회사업연구, 제8권, 제3호, pp.51-75, 2011.
- [5] J. M. Gottman, *The marriage clinic: A scientifically based marital therapy*, W. W. Norton & Company, New York, London, 1999.
- [6] D. N. Hawkins and A. Booth, “Unhappily ever after: Effects of long-term, low-quality marriages on well-being,” Social Forces, Vol.84, No.1, pp.451-471, 2005.
- [7] C. M. K. Dush and P. R. Amato, “Consequences of relationship status and quality for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Vol.22, No.5, pp.607-627, 2005.
- [8] 차근영,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9] N. Wieland and B. L. Baker, “The role of marital quality and spousal support in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without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Vol.54, No.7, pp.620-633, 2010.
- [10] 정문경,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pp.402-412, 2017.
- [11] 정병완, 홍혜영, “내현적 자기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부부공감과 결혼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7권, 제1호, pp.183-201, 2015.
- [12] 배미정, 조한익,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연구, 제15권, 제6호, pp.2417-2435, 2014.
- [13] 김세광, 홍혜영, “내현적 자기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8호, pp.392-407, 2018.
- [14] S. Akhtar and J. A. Thomson,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Vol.139, No.1, pp.12-20, 1982.
- [15] 김우정, *기혼자들의 자기에성향, 공감, 자존감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16] 김성미, 이수림, “배우자의 내현적 자기에성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pp.186-201, 2018.
- [17] 이성미, *자기에 성향자의 배우자 평가와 결혼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18] 한수정, *자기에성 성격장애*, 학지사, 2016.
- [19]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외현적·내현적 자기에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제2호, pp.255-266, 2005.
- [20] 강선희, 정남운,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4권, 제4호, pp.969-990, 2002.
- [21] 김현주, 안현의, “공감능력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용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1호, pp.157-174, 2011.
- [22] G. Lenthall, “Marital satisfaction and marital st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Counseling, Vol.3, No.3, pp.25-32, 1977.
- [23] 정문경, “용서, 헌신, 부정적 갈등대처양식, 결혼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2호, pp.249-278, 2016.
- [24] 정연옥, “결혼만족도와 가족 친밀감이 기혼자의 심리적 고통에 미치는 영향: 우울, 적의감 및 신체화 증상,” 한국가족복지학, 제21권, 제4호, pp.609-628, 2016.
- [25] 강혜숙, 김영희, “부부의 성격특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상담학연구, 제13권, 제6호, pp.2861-2880, 2012.

- [26] 강은정, 장성숙, “자기애와 내현적 대인반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4호, pp.913-932, 2007.
- [27] 박종효, “용서,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탐색,” 한국교육심리학회: 교육심리연구, 제26권, 제4호, pp.927-949, 2012.
- [28] 서정선, 신희천,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제1호, pp.87-106, 2007.
- [29] 양영숙, 김봉환, “부부갈등과 심리적 부적응과의 관계에서 공감과 용서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0권, 제2호, pp.683-699, 2009.
- [30] F. D. Fincham and S. R. H. Beach, “Forgiveness in marriage: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ggression and constructive communication,” *Personal Relationships*, Vol.9, No.3, pp.239-251, 2002.
- [31] 오영희,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제20권, 제2호, pp.467-486, 2006.
- [32] 최인숙, 문승연, “교회사회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부 위기에 대한 용서경험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제16권, pp.59-90, 2011.
- [33] F. D. Fincham, “The kiss of the porcupines: From attributing responsibility to forgiving,” *Personal Relationships*, Vol.7, No.1, pp.1-23, 2000.
- [34] 박민하, 전혜성, “부부갈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탈중심화 및 용서의 조절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제24권, 제3호, pp.339-359, 2016.
- [35] 배라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분노의 관계: 용서의 매개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36] 임원범, 홍혜영,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부과 완벽주의 관계에서 자기용서의 조절효과,” 통합치료연구, 제6권, 제2호, pp.55-73, 2014.
- [37] 정혜진, 양난미, “내현적 자기애, 내면화된 수치심, 공감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인간이해, 제38권, 제2호, pp.95-114, 2017.
- [38] J. Decety and C. Lamm, “Human empathy through the lens of social neuroscience,”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Vol.6, pp.1146-1163, 2006.
- [39] 박남숙, 연문희, “부부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제3권, 제2호, pp.337-364, 2002.
- [40] 정진미, 유현실, “성인애착유형과 공감수준에 따른 부부 갈등해결전략의 차이,” 상담학연구, 제14권, 제3호, pp.1535-1550, 2013.
- [41] 조한익, 이미화, “공감능력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11호, pp.139-158, 2010.
- [42] F. G. Paleari, C. Regalia, and F. D. Fincham, “Marital Quality, Forgiveness, Empathy, and Rumin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1, No.3, pp.368-378, 2005.
- [43] 강연우, *자기애와 방어유형 및 대인관계 특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44] 김준, “부부 갈등과 용서: 자기심리학과 기독교 상담적 관점,” 복음과 상담, 제25권, 제1호, pp.9-34, 2017.
- [45] 배정은, 신희천, 이민규, “원만성이 용서 동기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매개과정,” 상담학연구, 제11권, 제1호, pp.111-123, 2010.
- [46] D. K. Snyder,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L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1979.
- [47] 권정혜, 채규만,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18권, 제1호, pp.123-139, 1999.
- [48] 오영희,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6권, 제4호, pp.799-813, 2011.
- [49] A. Mehrabian and N. Epstein, “A measure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Vol.40, No.4, pp.525-543, 1972.
- [50] M. H. Davi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Vol.10, No.85, 1980.
- [51] B. Bryant, “An index of empathy children and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Vol.53, No.2, pp.413-425, 1982.
- [52] 박성희, *공감의 특성과 이타행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53] 전병성, *공감과 이타행동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54] 최인숙, 문승연, “교회사회사업 활성화를 위한 부부

- 위기에 대한 용서경험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제16권, pp.59-90, 2011.
- [55] 서신화, 최연실, “기혼남녀의 용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제4호, pp.81-101, 2009.
- [56] 노익상, *한국 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 만족도 연구: 개인적, 환경적, 상호작용 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57] 김기범, 임효진,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20권, 제2호, pp.19-33, 2006.
- [58] 전명희, “미국 내 한인여성의 가정폭력 특징과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피해사례의 내용분석,” 임상사회사업연구, 제8권, 제3호, pp.51-75, 2011.

#### 저 자 소 개

정 수 연(Su-Yeon Jung)

정희원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3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수료)
- 2016년 ~ 현재 : 부부교육프로그램 퍼실리테이터(프리랜서)

<관심분야> : 기독교 상담, 부부 및 가족상담